

일주문



파라미타청소년개인종교예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12월 12일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인터넷 개인종교예배를 위한 공개 포럼을 실시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최우수기관 선정
마하야나불교문화원 이사장 법혜 스님이 위탁운영하는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이 복지부 '2009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중교구연꽃마을 방문법회
조계종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은 12월 11일 국군장성부인회 성보회와 함께 안성 연꽃마을 파라밀요양원에서 봉사를 겸한 방문법회를 봉행했다.



월정사인월야구단 창단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12월 9일 직접 구단주로 불자사회인야구팀 '만월야구단'을 창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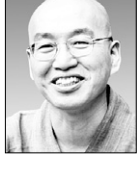
선본사 경산장학회 장학금 기탁
경산 갖바위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12월 7일 재단법인 경산장학회에 장학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갑사 2010 희망이웃사랑 성금 기탁
공주 갑사 주지 태진 스님은 12월 4일 오전 10시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2010 희망이웃사랑'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2100 토론회 주최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12월 3일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 2100' 토론회를 주최했다.



평화재단 북한전문기포럼 개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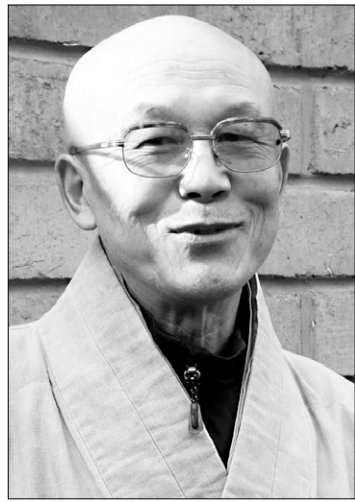
해동불교인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은 12월 6일 청암사에서 법계교시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061)644-7273



오영교 총장경영상 대통령표창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최근 2009 국가품질경영상 교육부문 대통령표창과 2년 연속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음의 때 벗기고, 몸의 살 빼는 수련

활인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 청소년을 위한 단기출가 참선단식수련 실시



대효 스님

"청소년을 위한 간화선 수행 지도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와 인생관을 자리 잡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을 겨울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참선 전문도량 안성 활인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이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다. 70년대부터 청소년 지도로 유명했던 스님은 청소년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대효 스님은 12월 24-28일, 30일~2010년 1월 3일, 1월 9-13일, 16-20일, 2월 6-10일, 2월 20-24일 활인선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단기출가 참선단식수련을 실시한다. 이번 수련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간화선을 지도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참가하도록 해 가족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모든 과정은 청소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수련 전 과정을 보호자들이 참관하거나 동참하되 부모님은 자녀에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효 스님은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수

련하면서 고뇌를 함께 나누고 자녀의 교육관과 부모로서의 자리를 찾도록 할 것"이라며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청소년 선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수련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효 스님의 수련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식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접근하는 이들도 있지만 수행을 마친 이들은 스스로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 대효 스님은 단식 수행의 효과에 대해 "체중감량은 물론이고 유소년기부터 생기는 각종 성인병 예방,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불안, 집중력, 기억력, 통찰력, 인내

심도 향상 시켜 준다. 자신감으로 창의성 능력 개발과 성격 개조도 가능하다"며 "밥을 먹어야만 배가 차는 것이 아니다. 잡시의 배고픔은 참선을 통해서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간화선과 단식수행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절

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효 스님은 40여 년 간 선(禪)수행 지도로 수많은 출·제가 수행자들의 삶에 빛을 밝혀왔다. 1970년 말 제주도 교육청, 제주지방 검찰청 후원으로 제주도 지역 각 고등학교교장의 추천을 받

석가산 스님 종정 추대 9일 진천 화랑관 법회



9일 봉행된 가산 스님 종정 추대 법회

대한불교전통종교계(총무원장 능인)는 12월 9일 충북 진천 화랑관에서 '석가산 스님 종정 추대 법회'를 봉행했다. 각양 스님의 개시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원각종 종정 혜철 스님, 중국 육조사 방장 대원 스님 등 각종 지도자 및 종단 임원과 사부대중 7백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능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시대 거승 가산 스님을 종정으로 받들어 정법을 만방에 떨치자"고 밝혔다. 종정으로 추대된 가산 스님은 종정 상징물을 봉헌 받고 법어를 통해 "애국 애족, 정법안장, 대각자랑의 의제를 통해 용승 조사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라"고 다짐했다. (053)325-5288

"문화재 등 불교 현안 지속 관심"

박근혜 국회의원, 조계종 총무원 예방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사진)은 12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현안 해결에 더욱 나설 것을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는 사고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안부를 시작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박 의원의 안부인사에 자승 스님은 "원래 어릴 때 왼손을 썼는데 어른들께서 왼손을 쓰면 고집이 세다고 하셔서 오른손을 썼다. 양손을 자유롭게 써 일상생활엔 큰 불편함이 없다"며 "큰 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양손을 쓰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다"고 화답하며 "압도적으로 종도들의 신뢰를 받으신 것에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예방자리에서 박

불기협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대상에 금강신문 이강식·최동진 기자

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지수, 이하 불기협)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과 공로상을 받은 불교언론 20년 이상 근속 기자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은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포교원장 해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이 참석해 교계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시상식에는 임연태 본지 부국장 과 이경숙 전 부국장을 비롯해 이학중(미디어넷), 김선두·이준엽(불교신문), 사기순(월간 불광) 등 교계언론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자 7명에 대한 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한국불교기자협회상 대상인 선원비 기자상에 금강신문 이강식·최동진 기자의 '사연 경제 세 모

델을 찾아서'가, 기획해설보다 부문에 금강신문 이강식·최동진·배희정 기자의 '스러졌다 살아 난 옛 절'이, 편집보도 부문에는 불교신문 김병순 기자의 '산사는 길'이 수상했다. 특별상 부문은 BTN의 '여기는 부처님 세상'이 '신인 기자상'은 주간불교 김도원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근현대 고승의 진영을 수채화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2009유심문학의 밤 문인들 한자리 모여



갑사배를 전달받는 유심 신인작가

원로 문인들과 신인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갖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8일 열린 '2009 유심문학의 밤'에서는 당대의 원로 시인들과 유심에서 등단한 신인들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학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유심에서 배출한 박방희, 김택희, 김향미, 김종규, 성승철, 김영주 등 7명의 시인들에게 격려차원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유심에 실렸던 시 중 '올해의 좋은 시'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유심문학의 밤에는 원로시인 고은, 이승훈, 오세영, 신달자, 한분순 씨 등이 참석해 후배 문인들을 격려했다. 이은정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땀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컷물이 아니라 물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갈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가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수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4차 : 환신 받고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병의원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가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